

신학철 부회장이 “美 배터리 사업에 14조원 투자”

(2025년까지)

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 협력 논의 세계 최대 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양극재 생산공장 신설 적극 검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19일 서울 강서구 LG화학 마곡 R&D 캠퍼스를 방문한 제니퍼 옌 미 재무장관(왼쪽)에게 전지차 배터리 소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화학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19일 서울 강서구 LG화학 마곡 R&D 캠퍼스를 방문한 제니퍼 옌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2025년까지 미국 배터리 공급망 현지화에 약 110억 달러(약 14조4331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옌 장관과 1시간 넘게 LG화학의 전지 소재 기술과 지속가능 전략이 담긴 전시장을 둘러보고, 소재 공급망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옌 장관은 “한미 양국 기업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양국이 균전한 경제 동맹으로 성장했다”며 민간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세계 최고 전지 소재 회사 목표

LG화학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지 소재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극재부터 분리막, CNT(탄소나노튜브), 방열접착제, 음극바인더, BAS(Battery Assembly Solution)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회사’를 목표로 2025년

까지 6조 원의 과감한 투자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하기 위한 투자액(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포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10억 달러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극재 공장 신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옌 장관과 논의를 통해 공급망 협력이 가속화 되면 LG화학의 북미 배터리 소재 관련 투자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화학의 배터리 제조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합작사 형태로 미국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건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에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전지 소재에 대한 현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LG화학은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지 소재 사업을 위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등 자원 순환(closed-loop)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미 최대 규모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

(Li-Cycle)에 지분을 투자하고 2023년부터 10년 간 재활용 니켈 2만톤(고성능 전지차 30만대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 부회장은 “미국은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연구개발이 본격화된 곳으로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 기업들과는 오랜 시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미국 주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화시스템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마련한 전시부스 전경. 사진제공 | 한화시스템

“UAM·우주항공·첨단 방산 판로 개척” 한화시스템, 英판버러 에어쇼 첫 참가

한화시스템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방산 전시회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해 글로벌 UAM·우주항공·첨단 방산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18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 인근 햄프셔카운티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 2022’에서 230m(70여 평) 규모의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UAM과 방위산업(Defense) 두 개의 존(구역)을 통해 지상·공중·우주를 잇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 기술과 사업 역량을 선보였다.

UAM 존에서는 미국 오버에어사와 공동개발 중인 ‘버터플라이’ 기체의 실물 크기 로터(대형 회전날개) 목업을 최초 공개한다. 블레이드(프로펠러)가 3개 달린 로터는 직경이 6m, 높이는 6m에 이른다.

방위산업(Defense) 존에서는 한화시스템의 초소형 S AR위성, 저궤도 위성(LEO) 통신용 전자식 안테나, 한국형 전투기(KF-21) 탑재용 AESA 레이더 기술 등 첨단 방산 제품을 전시한다.

E1, 수도권 LPG 복합 수소충전소 3곳 문 열어

(과천·고양·서울 강서)

시간당 수소차 6대 이상 연속 충전 멤버십 오렌지카드 적립 혜택 제공



18일 경기도 과천 소재 E1 충전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오픈 행사에서 구자용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구동휘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E1

LS그룹의 계열사이자 국내 대표 액화석유가스(LPG) 유통업체인 E1이 수소충전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E1은 경기도 과천, 고양 및 서울 강서에 위치한 LPG충전소 3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E1은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LPG 복합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3개 수소충전소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축 기간을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 한강유역 환경청 및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년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E1은 최근 수도권 북, 서 지역인 경기도 고양과 서울 강서 소재 LPG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상업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경기 남부인 과천충전소가 과천시 최초(1호)로 18일 상업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도권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3개 충전소 모두 시간당 수소차 6대 이상 연속 충전이 가능하고, 연

중무후로 운영되는 데다 자동 및 실내 세차 설비도 보유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과천충전소는 전기차 충전 시설도 보유하고 있어 LPG·수소·전기차 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론칭한 미래형 복합충전소 브랜드 ‘Orange Plus’가 적용되어 수소차

충전 고객도 기존 LPG차 충전 고객과 동일하게 E1 멤버십인 오렌지카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소차 충전 시 kg당 44포인트를 적립하며, 매 충전 시 오렌지카드 앱(App) 내에서 응모 가능한 100만 포인트 잭팟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E1은 향후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복합 및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LPG 사업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에서부터 액화수소 및 암모니아의 수입, 저장, 유통에 이르는 수소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해 다양한 수소 신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자용 E1 회장은 18일 과천충전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E1 수소충전소를 찾아주시는 수소차 운전 고객들에게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E1은 수소 인프라 구축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K E&S, 美 청록수소 기업에 330억원 투자

SK E&S가 미국 청록수소 기업 모놀리스 머테리얼즈에 약 330억 원(약 2500만 달러)을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본사를 둔 모놀리스는 청록수소 생산에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어 공정기술을 갖추고 있다.

SK그룹 내에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사인 SK E&S는 이번 투자로 블루·그린 수소에 이어 청록수소까지 수소생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청록수소 사업 추진에 있어 그룹차원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모놀리스가 생산하는 청록수소는 천연가스(CH4)를 열분해하여 수소(H2)와 고체탄소(C)를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록수소는 블루·그린수소와 함께 친환경 수소로 분류되고 있다.

SK E&S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모놀리스의 청록수소 기술 경쟁력과 SK E&S의 수소사업 역량을 결합해 국내시장에서의 사업기회도 모색할 계획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0일(수) 음력: 6월 2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일 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력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리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하여 결실의 탐을 쌓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말미잘과 일을 도모하면 문제가 해소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용띠생을 만나면 해결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장래를 봐서 거러에 투자하라. 용띠생이 귀인이다.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에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오늘의 날씨			20일(수)		
서울 30/30	인천 30/30	춘천 30/30	24 30	24 28	23 30
강릉 20/30	대전 30/30	전주 20/20	25 31	23 32	23 32
광주 10/20	대구 20/20	부산 10/10	23 32	24 33	24 30
창원 10/10	제주 10/30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23 32	24 31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7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